

	<h1>보도자료</h1>
문의	World Hydrogen Expo 조직위원회 - 한국수소연합 하지원 실장 02-6258-7457 홍보대행사 NPR 유준희 이사 02-6949-4411 / 함영은 과장 02-6949-5075

배포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17:00

보도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10:30부터

'글로벌 수소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할 "World Hydrogen Expo 2025" 오늘 개막

- ◆ 12월 4일(목)부터 12월 7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
- ◆ 올해부터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 ◆ 해외 26개국 및 279개사 등 국제기구, 유관기관, 산업체 등 참석
- ◆ 김재홍 조직위원장 개회사 통해 "수소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했으며, 글로벌 수소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World Hydrogen Expo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강남훈 회장)가 주최하는 'World Hydrogen Expo 2025(이하 WHE 2025)'가 12월 4일(목)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7일 일요일은 오후 4시까지)이다.

올해부터 기존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H2 MEET 전시회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WHE 2025에는 해외 26개국 279개의 국제기구,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서 참가한다. 12월 4~5일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는 ▲Leadership & Market Insight(주요국 정부 및 산업체의 정책·산업동향) ▲Hydrogen Deep Dive(주요 기업 및 전문가의 기술·산업 전략) ▲Country Day(3개국의 수소산업 사례) 등 3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12월 4~7일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는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에 걸쳐 22,000m² 규모로 구성되어 글로벌 기업과 기관 간에 실질적인 기술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회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 이종배 국회의원,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등을 비롯해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내외 산업계 및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홍 공동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수소경제가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도국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올해부터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통합, 개최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했으며, World Hydrogen Expo를 ‘글로벌 수소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공동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금번 수소 행사는 2020년 ‘H2 MEET’라는 타이틀로 처음 시작된 이래 확대 개편되어 수소분야 글로벌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면서 “현대차그룹, 코오롱인더스트리, 3M, HD현대인프라코어 등 국내외 수소선도기업의 혁신 기술이 대거 선보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소산업의 글로벌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WHE 2025는 전 세계에 ‘수소 선도주자들이 혁신으로 뭉쳐 더 빠르게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수소경제 중심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수소경제포럼도 대한민국 수소경제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법과 정책, 제도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청정수소 생산체계 고도화, CHPS 활성화, 수소 인프라 확충 및 활용시장 확대 등 아직 도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혹시 수소경제 흐름이 멈출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면서 “국회수소경제포럼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또 수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제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로랑 안토니(Laurent Antini) 의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빈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개막식은 막을 내렸다.

이번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은 WHE 2025 홈페이지 (https://www.h2meet.com/html/ko/main_gate.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끝).

- #첨부) 1. 김재홍 조직위원장 개회사
2. 컨퍼런스 주요 연사 발표내용
3. 개막식 행사 사진(사진은 행사 당일 13:00 별도 송부)